

## 산불피해 우려되는 사과·복숭아 수급영향 최소화, 계란 등 농축수산물 출하가격·유통구조 점검 실시

- 산불피해 조사결과, 채소류 양호, 피해 우려되는 사과·복숭아 영향 최소화에 만전
- 계란 등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유통구조 현장점검 실시 및 불공정행위 엄단
-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에 이어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2개월 연장(~'25.6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25(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해 ①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및 대응, ②농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 기재부(주재), 농식품부, 해수부, 공정위

김 차관은 “기상여건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체감물가 부담 완화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의 농작물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한 결과, 마늘·고추 등 채소류는 수급영향이 제한적이나, 사과는 전국 재배면적의 1.4%, 복숭아는 0.6%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사과 등 피해 작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육촉진제 지원 등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개화 관리를 통해 적정 생산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가격과 유통구조 전반을 농식품부·해수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담합 여부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상황이 양호함에도 3월에 산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계란의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계란 가격 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에 이어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25.6월)하여 유류비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 유류세 인하율(% , ~'25.6월) : (휘발유) △15→△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23→△15

\*\* (경유) 1,700원/리터 초과분의 50% (압축천연가스(CNG)) 1,330원/m<sup>3</sup> 초과분의 50% (183.21원/리터·m<sup>3</sup> 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임혜영 (044-215-2770) 사무관 연정은 ( jey0903@korea.kr )
	경제정책국 물가구조팀	책임자 담당자	팀 장 최정빈 (044-215-2931) 사무관 가순봉 (07mmuser@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책임자 담당자	과 장 배민식 (044-201-2681) 서기관 김성만 (bomipapa@mail.go.kr)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이연섭 (044-201-2336) 사무관 이재승 yijaes3@korea.kr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서기관 김수정 (sjcrystal@korea.kr)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이승규 (044-200-4300) 사무관 박성훈 (sunghoon92@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